

2009년 7월 17일

화학경제연구원  
컨설팅팀발간일: 2009년4월  
분량: 130 페이지  
가격: 55만원김은진 전문연구원  
(02)2108-8070  
consulting2@chemlocus.com

## 한국 및 글로벌 화학기업 임금구조 분석

### 한국화학기업 고정비 정책 : 임금 정책 효율화가 절실한 시점

글로벌 경영위기 상황에서 임금 정책은 화학기업의 고정비 효율화 정책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매출상위 50대 기업과 세계 매출상위 30대 기업의 임금 구조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한다.

Flexibility,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매출액 개념이 아닌 영업이익 상승률 기준 개념의 탄력적 인건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Profitability, 단위 인건비 투입량 대비 Out put을 극대화해야 한다. 사업부 개편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및 인력 고부가가치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Productivity, 생산직 고임금 구조 탈피로 원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변동비 개념의 급여 구조를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임금 협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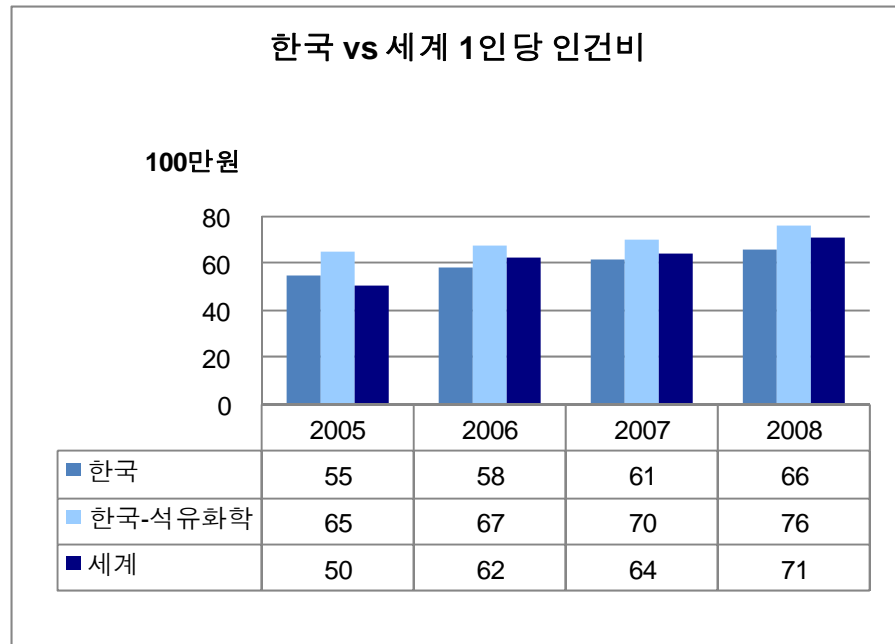
Reality 고정급여 확대 및 복리후생비 절감 정책을 세워야 한다. 글로벌 12대 기업의 예처럼 복리후생비 비율은 점차 축소시키고 의료비 등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조건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양보다 현실성 있는 복리후생이 필요하다.

### 한국 vs 세계 인건비 상승률

한국의 매출상위 50대기업(석유화학 22개, 비석유화학 28개)과 세계 매출상위 30대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경쟁력 분석을 위해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세계는 1인당 7100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반면 한국은 6600만원으로 세계가 500만원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인건비의 증가율은 한국이 6.7%, 세계가 7.9%로 나타나 세계의 인건비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특히 비석유화학기업군의 인건비 상승률이 동기간 내 연평균 7.9%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매출액 중 인건비의 비율은 최근 4년간 한국이 1.2%p의 감소세를 보여 세계의 2.6% 감소세 대비 1.4%p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최근 4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세계는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보여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Source) CMRI

#### 매출액 증가율 대비 인건비 상승률

매출액은 제품의 생산원가 즉 변동비의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만을 살피는 것보다 수익의 개념에서 인건비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화학기업과 한국 화학기업의 매출원가 기준이 달라 매출총이익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의 상승 혹은 하락율을 기준으로 인건비의 변화추이를 살펴 보았다. 인건비를 단순히 절대적 금액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지 않고 기업별 혹은 기업군별 매출액 상승률 대비 인건비 증가율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위치를 확인했다.

산포도가 1영역에 위치할수록 매출액 상승률이 인건비 증가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영역은 매출액 상승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률이 높은 영역이며 4영역은 매출액 상승률이 높는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이 낮아 최적 비용 구조를 보이는 영역이다.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은 주로 1영역과 2영역에 분포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원점(0.0, 36.0)에서 많이 떨어진 위치에 포지셔닝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2영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많아 매출액 상승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비효율적 인력운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석유화학기업들은 1영역에 다수의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 매출액 상승률과 인건비 증가율이 정비례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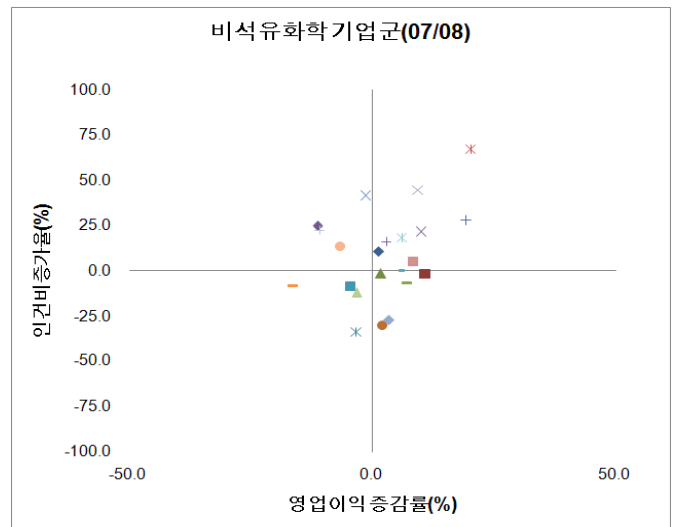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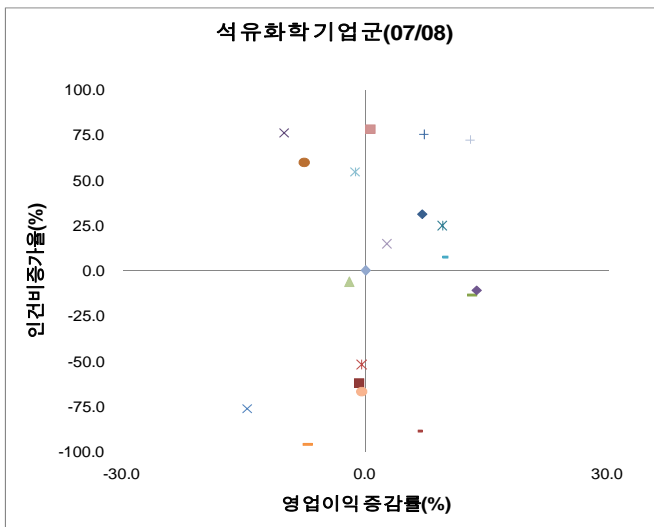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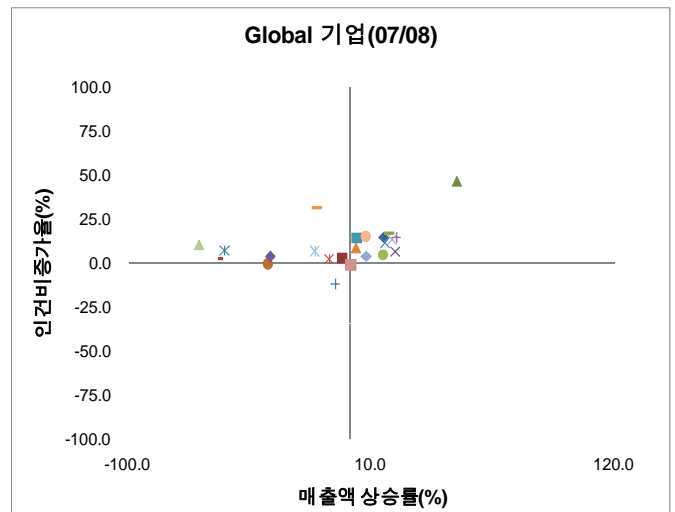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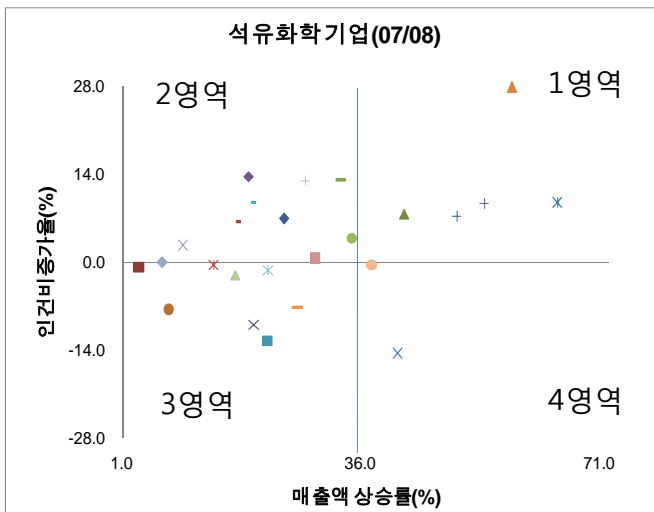
Global 화학기업의 경우 매출액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증가율 좌표가 주로 원점을 중심으로 모여 cluster 형태이다. 이는 매출액이 상승한다고 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급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 영업이익 대비 인건비 상승률

영업이익 증감률 역시 인건비 증가율의 합리성을 결정지를 중요한 지표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한국의 석유화학기업군과 비석유화학기업군의 영업이익 증감률 대비 인건비 증가율을 산점 도표로 살펴본 결과 비석유화학기업군은 영업이익 증감률과 인건비 증가율이 정의 방향으로 비례하며 움직여 합리적인 인건비 산정이 이루어진다 분석된다.

반면 석유화학기업군은 영업이익증감률과 전혀 관계없이 인건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비석유화학기업군의 직원 평균 근속 년수가 10년인데 비해 석유화학기업군의 직원 평균 근속 년수가 13.4년으로 나타나 장기근로자의 수가 많았고 노동조합의 파워가 비석유화학 대비 석유화학기업군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유화학기업군의 경우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통상급여 수준뿐 아니라 고정상여급여, 변동 상여급여까지 일정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 받는 임금구조를 택하고 있다. 즉, 석유화학기업군은 실제로 당해년도의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1~2분기 협상에 의해 미리 결정된 수준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어 2008년 하반기 영업이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인건비 증가율을 유지했다.



Source) CMRI

## 단위 인건비 당 영업이익률

인건비 1단위 투입당 영업이익의 배수는 기업의 임금 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는 평가계수이다.

2008년 한국의 석유화학기업군은 인건비 대비 영업이익률이 1.5배를 기록하고 있다.

비석유화학 기업군은 절대적 영업이익 자체가 낮아 인건비 대비 영업이익률이 0.6배 수준에 그쳤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인건비를 투입 대비 107억 만달러의 EBIT를 기록해 2.4배의 높은 이익률을 기록했다.

한국의 석유, 비석유 부문과 글로벌의 3대 기업군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비석유화학기업군이 단위 인건비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였으며 글로벌 기업의 단위당 영업이익률이 2.4배로 가장 높았다. 한국 석유화학기업군은 1.5배에 불과해 글로벌 기업 2.4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 1인당 임금 비교분석

2008년 기준 세계 30대 기업의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을 원화로 환산하면 7100만원수준으로 한국의 6600만원에 비해 500만원이 높았다. 한국은 석유화학기업 연봉이 2008년 기준 평균 7600만원인데 반해 세계는 7100만원으로 나타나 한국 석유화학기업 연봉이 연간 5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인건비의 상승률은 한국이 최근 4년간 연평균 6.1%, 세계가 12.4% 수준이다. 동기간 당기 순이익 성장률은 세계가 연평균 4.5%인데 반해 한국은 15.8%씩 감소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인건비 상승률이 세계 인건비 상승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인력규모는 2008년 기준 한국은 1개 기업당 1771명이 평균적으로 종사하는 반면 세계는 1개 기업당 평균 6만2735명이 종사해 규모면에서 60배의 차이를 보였다. 최근 3년 기준 인력증감률은 한국이 연평균 3.4%씩 고용을 확대한 것에 반해 세계는 0.2%씩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07년에 중동프로젝트 지연, 유가 상승분의 제품가격 전가로 석유화학시장이 뜻하지 않은 호황이었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인원의 확충보다 적정규모의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순환제 근무 및 감축에 힘쓰고 있다.

## 직무별 1인당 임금 비교

직무별 임금 구조는 생산직, 사무직으로 크게 구분하여 비교했다. 실제적으로 회사내 직무는 생산, 영업, R&D, 마케팅, 기획 및 전략, 물류, Staff 등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으나 기업별 객관적 평가를 위해 본 보고서 상에서는 공시한 생산직과 사무직의 2개로 구분하여 평균임금을 분석했다.

석유화학기업군의 경우 사무직 1인당 평균 연봉과 생산직 사이의 연봉 Gap은 1600만원 수준으로 생산직의 임금이 더 높은 구조이다. 평균임금 상승률 역시 사무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0.8% 정체인데 반해 생산직은 동기간 연평균 10.2% 상승세로 극과 극을 달렸다.

비석유화학기업군은 사무직과 생산직의 1인당 평균연봉 차이가 1700만원 수준으로 사무직의 임금이 1700만원 더 높은 구조이다. 임금 상승률이 각각 연평균 6.4%, 4.3%의 비교적 균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08년 기준 1인당 평균임금 구조 역시 석유화학기업군의 생산직과 비석유화학기업군의 생산직 임금 차이는 연간 30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생산직의 경우 절대적 임금이 높음과 동시에 최근 3년간 인건비 상승률 역시 가장 높아 고정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 vs 글로벌 상위 12개 기업 고정비 대비 인건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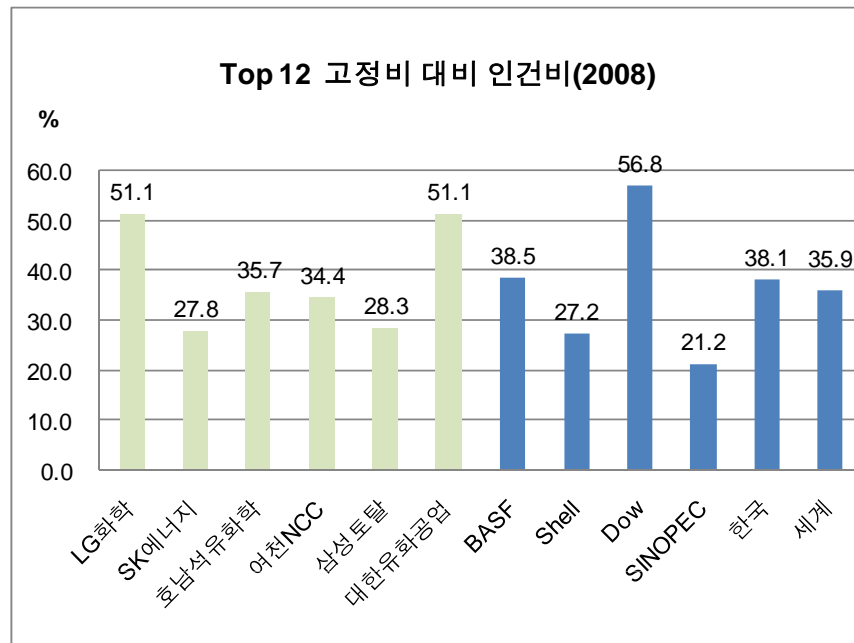
고정비 중 인건비는 한국 Top 기업들이 2008년 기준 38.1%인데 반해 세계 6대 기업은 35.9%로 세계 화학기업들의 인건비 비중이 낮았다. 2005년의 40.8% 대비 한국 Top 기업들의 고정비 중 인건비 구성비가 점차 하향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세계 Top 6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Top 기업들의 경우 1조7158억3600만원이 한해 평균 인건비로 소요되는 구조로 제품판매원가 대비 27.7%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처럼 외형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동기간 감가상각비 상승률이 6%대로 낮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인건비 자체의 확대보다는 기타 고정비의 상승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비율이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기업별로는 LG화학과 대한유화공업이 고정비(인건비+감가상각비+경상개발비+판매관리비) 중 인건비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LG화학은 판매관리비를 2005년 매출액 대비 12%에서 2008년 매출액 대비 6%로 절감한 반면 동기간 인건비는 연평균 11%씩 인상시켜 전체 고정비의 50%에 달하는 높은 인건비 비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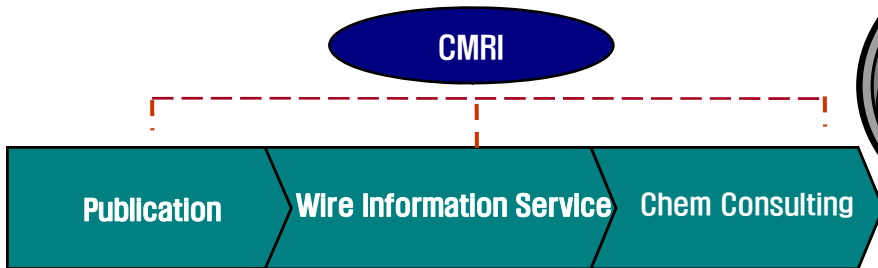
삼성토탈은 최근 4년 사이 고정비 중 인건비 비율이 38.6%에서 28.3%로 10.2%p 하락했는데 인건비의 절대적 감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신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인건비의 고정비 내 비율이 하락했다.

한국 및 세계의 Top 12대 기업 가운데 고정비 중 인건비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중국 기업인 SINOPEC으로 21.2%의 최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Source) CMRI

• 상세한 내용은 2009년 4월 발간된 [한국 및 글로벌 화학기업 임금구조 분석]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Chemical Journal (since 1991) (Weekly chemical market magazine)
- ▶ Chemical Yearbook
- ▶ Petrochemical Industry book
- ▶ ChemLocus.co.kr
- ▶ Chem Market News DB
- ▶ Petrochemical Price DB
- ▶ Petrochemical S&D DB
- ▶ Chemical Company DB
- ▶ Seminar/Conference
- ▶ Market Analysis
- ▶ Demand Forecasting
- ▶ Price Forecasting
- ▶ New Business Development
- ▶ Feasibility Study
- ▶ Management Strategy
- ▶ Policy & Strategy Establishing

Expertise Industry	Products
Petrochemical	Olefins(C1, C2, C3, C4 Derivatives.), Aromatics, Synthetic Fiber Materials...
Performance Polymer	Electronic/Automobile/Construction Polymers, Engineering Plastics, Super EP, TPE ...
Specialty Chemicals	Electronic Chemicals, Plastic Additives, Catalyst, Environment Chemicals...
Fine Chemicals	Paint & coating, Adhesive, Surfactant, Pigment, Chloro-Alkali, Silicone, Fine Cera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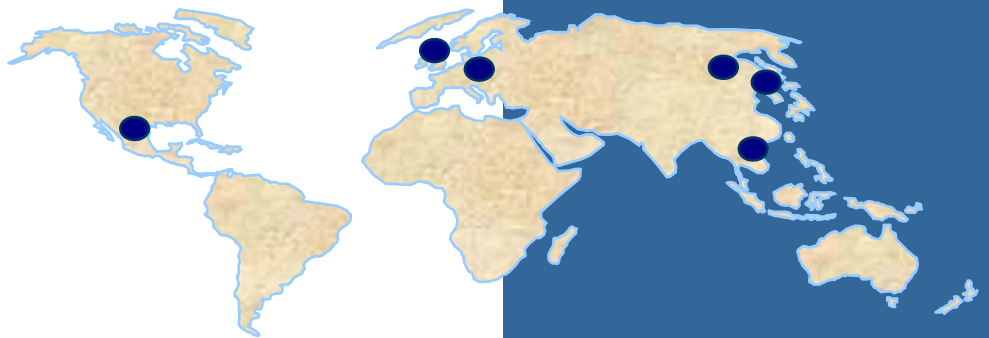


부품소재, 파인세라믹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수립

신규 투자품목 발굴

수익분석 및 사업타당성 검토



화학경제연구원

Phone: +822 2108-8070

Fax: +822 2108-8077

consulting@chemlocus.com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주)화학경제연구원에 있으므로, 무단 전재 및 판매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